

# 사찰 풍경

## 염원의 불사(佛事) 화순 운주사

# 합장하는 곳이 대웅전이고, 극락전이네

**와** 불(佛)은 언제쯤 일어날까.  
새벽닭이 울던 그 날로 마음 끝이 달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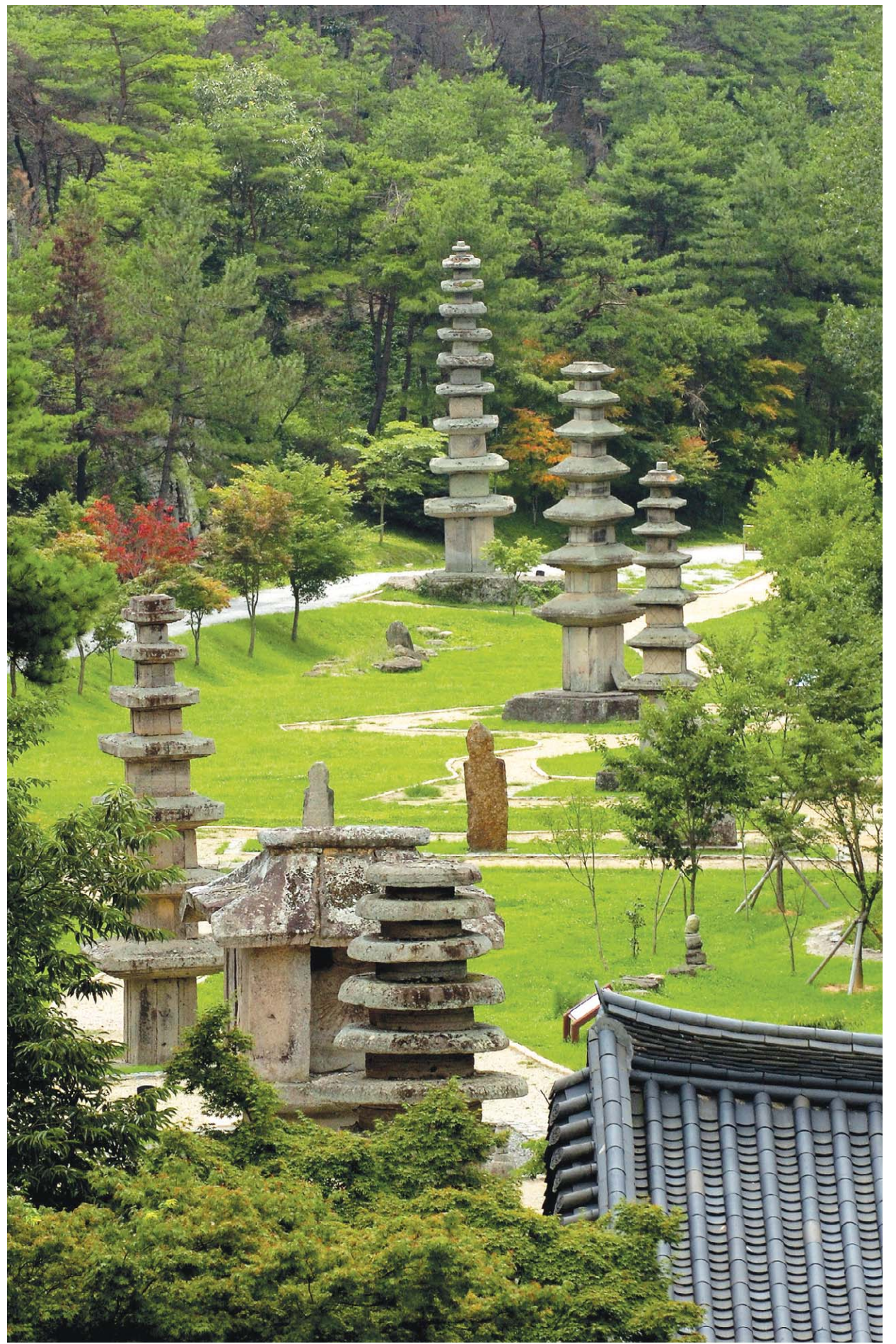
하루 낮밤 만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이 오셨다는 염원의 도량 운주사.  
일주문에서부터 도량 곳곳이 불상이다.  
합장하는 곳이 대웅전이고 극락전이고 설법전이다.  
울퉁불퉁해진 석불의 얼굴은 중생의 얼굴을 닮아가고,  
간절한 기억으로 서있는 석탑의 그림자에는 질푸른 이끼가 끼었다.

대웅전 곁에 널린 빨간 고추 위로 여름 벌이 쏟아지고  
스님이 날여놓은 이불 빨래 위로는 따가운 남풍이 지나간다.  
산꼭대기에서 매미가 뜨겁게 운다.  
와불이 있는 곳이다.

와불은 여전히 누워있다.  
천불천탑을 세우던 그 옛날.  
새벽닭이 울어 일어설 수 없었던 마지막 불상.  
부처의 모습으로 왔으나 중생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와불.  
중생의 모습을 보는 날, 정토(淨土)의 날은 밝아올 것이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세상을 다 태울 것 같았던 태양이 무상(無常) 앞에 식어가는 저녁.  
비바람에 깎인 석불의 그림자가 오늘도 일주문을 나선다.  
시방(十方)의 시간은 식어가는 태양을 따라가고 일주문을 나선 부처의 그림자는 다가올 미래를 따라간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 국제 육조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국제 육조정맥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두 번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범용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조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회로 인해 8월의 서울, 포천, 광주, 부산 법문 쉽니다.**

- 일 시 : 2008년 8월 13일(수) ~ 8월 17일(일)
- 회 비 : 80,000원 (농협 100039-51-043731 예금주 : 최주희)  
입금하시고 010-8670-1445로 성명 / 입금자명 / 연락처 알려주세요.
- 문 의 처 : 010-8670-1445 / 02-3494-0122 / 011-785-0122
-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약도 등 관련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련회 당일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